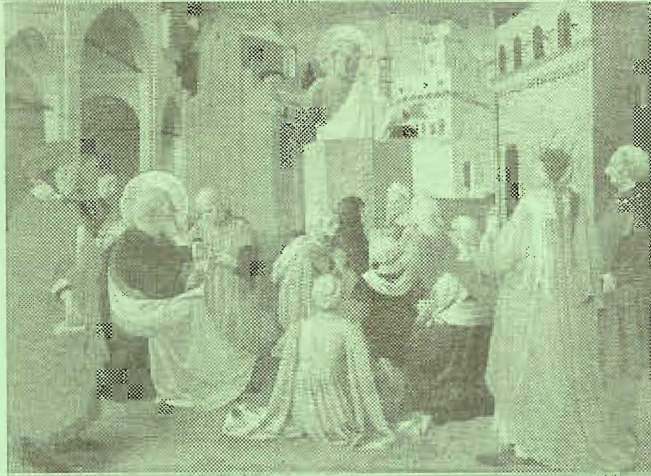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주일)
제33권 47호(다해) 2013.10.20

[묵상]



베드로 성인의 복음 전파

천당 문 앞에서
베드로 성인이 두꺼운 책을 펼쳐보시며,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구나.
좋아, 너는 천당!"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구나. 너도 천당!"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구나.
너도 천당!"
이런 식으로 심판이 계속되었다.
앞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준 일이 없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병자를 방문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차례가 되자 베드로 성인은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별로 한 것이 없구나.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울했을 때 우스운 이야기를 해 주었고,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농담 한마디를 해 주었다.
따라서 너는 예수님께 활기를 주었으니 너도 천당!"
이처럼 천국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된다.
천국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내가 이웃들에게 짓는 작은 미소,
한번 웃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립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미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정음전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최근석 마리아, 이명자 묘사, 이정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타,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박종례 요안나, 이극중, 강래봉, 지판덕 테레사, 이용식 베드로 (생)이윤조 클라라, 이광웅 요셉, 이준영 마르코 & 이케이미 크리스티나, 박영식 안드레아 & 바나콜, 안연숙 루피나, 이남호 사라, 강호광 스테파노 & 신정원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 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7	252	233
봉헌	257	265	269
성체	401	304	301
파견	377	215	215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2)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교부들은 마리아의 동정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읽을 줄 알았다. 유스티노 성인은 마리아의 동정성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증명하는 한 가지 징표로 이해하였다. 유스티노 성인 이후 '동정녀'는 성모 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예수님 출산 이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많은 교부들에게 문제없이 수용되었다. "동정으로 잉태하셨으며, 동정으로 출산하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머무신다."

이러한 입장은 마침내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선언되었으며(DS 422.427), 이후 공의회를 통하여 반복하여 천명되었다.(DS 503.571.188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하느님의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낳으셨음에도 완전한 동정성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천주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신 당신의 맡아드님을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기꺼이 보여 주시던 성탄 때 그 결합이 드러난다." (교회 헌장, 57항).

성모 마리아의 동정에 관하여 오랫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자연 과학적 입장, 종교학적 입장, 그리고 성경의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자연적 현상을 초월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표현하는 마리아의 동정잉태는 하느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한 가지 징표로서의 신앙 진술이다.

이러한 신앙 진술은 그리스 신화(神話)에서 볼 수 있듯이 신제우스와 인간 여성의 성적 결합으로 탄생하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이나 영웅의 신화적 서술과는 구별된다. 또한 성모님의 동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표현들, 곧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태 1,25), '첫아들' (루카 2,7), '예수님의 형제' (마르 3,31-35) 등의 표현 역시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에로니모 성인을 비롯한 교부들은 성서학적 문제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첫아들'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첫아들'이라는 표현은 외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었다.

성 바실리오(Basilios) 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낳을 때까지'라는 표현에서 '-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그 사건과 그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다음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친구야 함께 놀자

어린시절의 추억들 가운데에는 간혹 잘 보존된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복사단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당 다니는 것이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선교의 열정(?)'이 강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종종 성당에 데리고 가곤 했는데, 이럴 때면 시합 때의 김연아 선수처럼,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보란 듯이 성호를 긋고 오른 무릎을 꿇는 등 과장된 행동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성당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곳인지를 알리고 싶었고, 또 성당에서 함께 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포5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의 해'를 선포하면서, 공의회의 근본취지를 기억하며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해'의 막바지에 맞이하는 전교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복지기관이나 NGO(비정부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앙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내면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가톨릭교회교리서' 850항)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당신 복음선포의 출발지인 갈릴래아로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말씀은 왠지 딱딱한 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사랑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는 당부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삶의 지혜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족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은 더욱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야, 함께 놀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소중한 것들은 여전하다.

예전엔 걸어 다니는 전화번호부였는데
이젠 돌아서면 잊는다며 나빠진 기억력에 서글퍼지지만
그건 나이 탓이 아닐까야. 첫아이의 첫걸음 떠던 일,
가슴에 종이 카네이션 처음 달던 날, 오디를 틀다
진드기에 물려 가려웠던 어느 여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잖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전화번호는 아니었던 게지.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20일(19일 특전미사 포함)
오늘(10월19/20일) 주일은 '전교 주일'로 전세계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향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적극적인 봉헌을 바랍니다.

◆ 제대회 총회

- 일시 : 오늘 주일(20일), 낮미사후, 강당
- 대상 : 제대회원 및 후원자들(새후원자 환영합니다.)
- 목적 : 지난 1년간 회계보고, 친교(점심식사 제공)
- 문의 : 윤정옥 실비아 제대회장 ☎(909)557-7490

◆ 백삼위 본당 탁구순위 결정전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오후 1시, 장소 : 강당 및 유아실
- 대상 : 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성모회 10월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0일) 낮미사후 12시 30분 친교장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요셉회 10월 모임

- 일시 : 오늘주일(20일) 낮미사후 친교장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본당 ME 세어링 및 ME제정 사제의 달 기념모임

- 일시 : 10월27일(주일) 오후 6시 친교장
- 참석대상 : 새로 부임하신 본당 신부님, ME 출신 모든부부
- 문의 : 정동호하상바로 & 병옥 율리아 본당대표부부

◆ 안나회 효도관광

- 일시 : 10월2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성당도착 오후6시)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4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부부 또는 가족2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신청마감 : 10월22일(화), 문의:한투시아 회장 ☎738-4387

올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는 본당 '백삼위성당'이 주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협조합니다. 특히 성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연습시간 : 1차(27일 주일 오후1시), 2차(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3차 리허설(11월28일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파 현장)
- 대상 : 성가대원 및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성가연습을 해 온 모든 교우들 *문의 : 민안나 지휘자 ☎(310)634-9631

◆ 2014년 갑오년(가해) 본당 새해달력 광고후원 주문

- 신청마감 : 10월24일(목)까지 사무실
- 새해달력의 특징 :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20일(주일) : 토런스 남1반(콩나물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 : (5학년 핫도그와 칩)
- 10월27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우거지된장국 \$3)
*주일학교(4학년 치킨 케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대우	김상규	김양금	김원호	김재희
	김정웅	김찬구	김형순	남명자	박광식	박현주
	배태임	신경훈	오세원	윤 철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영희	이일길	이재용	전동훈	정규숙
	정열모	정훈모	최득순	최의수	한혁수	
	한길선례	이크리스	송마이클			
	합계 : \$3,535					
주일미사 헌금 : \$2,665						
성전헌금	권태만	김대우	김양금	김원호	김재희	김찬구
	남명자	박광식	박현주	신정훈	오세원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영희	전동훈	정규숙	정열모
	정훈모	최득순	한혁수	한길선례	이크리스	
	송마이클					
	합계 : \$2,375					
감사헌금 : 김대우 박이레네	한남체인도네이션 : \$330					

공지사항

◆ 주일학교 고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오늘 주일(20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강당)
- 대상 : 9학년~12학년 학부모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주일학교 중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10월27일(주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2층 중등부 교실)
- 대상 : 7학년~8학년 학부모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주임 ☎(310)918-8665

◆ 주일학교 찬양밴드 음악교사 모집

- 자격 : 음악에 관심있는 가톨릭 신자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3일((주일) 주일미사후(아침, 학생, 낮미사)
- 장소 : 부엌 옆 부스와 친교장
- 품목 : 음식판매, 도넛과 커피 & 간단한 아이들 용품
- 목적 : 백삼위 어린이들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자모회장 ☎(310)782-1025

◆ 주일학교 중등부 F.I.G.S. Jr. Lock-In

- 날짜 : 11월8일(금) 오후 6시~9일(토) 오전 9시
- 장소 : 본당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스텔라 남 중등부 주임 ☎(310)918-3324

남가주 소식

◆ 남가주 꾸르실료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11월2일(토) 오후 3시~10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티켓 : \$10(식사포함)
- 문의 : 본당 꾸르실료 간사(백삼위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남가주 한인가톨릭 위령의 날 합동 연도 및 미사

- 일시 : 11월9일(토) 오후 1시15분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 사우스베이 러닝팀 마라톤 교실 개강 안내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5주간)
- 장소 : El Retiro Park(126 Vista Del Parque Torrance, CA 90277)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외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장 ☎(213)256-5028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10/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0/12(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10/11(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태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10/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999-5808 10/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617-1132 10/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준 방지저 968-8280 10/18(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951-4710 10/9(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0/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병연 리디아 404-1607 10/2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금자 테레사 804-7645 10/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펠립보 377-4219 10/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910-9943 10/11(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병록 요셉 818-1799 10/11(금) 오후 7시
	4	이귀환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10/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2013년 제87차 전교주일 교황 담화문(요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 코린 5,1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전교 주일을 지냅니다. 신앙의 해는 우리가 주님과 맺은 친교를 강화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여정을 굳게 다지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저는 몇



가지 성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열어 줍니다. 신앙은 그분의 한없는 자비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신앙은 나누어야 하는 선물입니다.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 제자의 본분 가운데 하나이고 교회의 삶 전체에 활력을 주는 지속적인 투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그분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세상에 파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활동으로 활력을 얻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와 놀라운 만남을 체험하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깊은 기쁨의 경험,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길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 따라 성령께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님을 도와드리십시오. 교황청 전교기구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대한 한층 깊은 선교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신앙의 해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올해 전교주일에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사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이 근본 사명에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봉사자이며 선교사로서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현대의 복음 선교」 80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가톨릭교회교리해설-Q&A

☞ “열 번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는 계명은 재물을 멀리하라는 의미인가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재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먹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며,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굶주림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계명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당신의 창조사업을 계속하고 완성하라는 의무도 주셨습니다. (창세 1,26-29 참조) 계속되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은 이 세상에 생명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생명의 문화와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즉,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적 욕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하게 되고, 이런 욕망은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시작된 탐욕은 한계가 없어 타인의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도 부당하게 욕심을 부립니다.

“열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금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귀는 감미로운 음악을, 눈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입은 맛있는 음식을 추구합니다. 분명 재물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각적인 것을 넘어 더 높고 더 깊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계속 마시면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갈증은 결코 바닷물로 해소되지 않듯, 재물은 인간의 깊은 영혼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재물과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기심은 증오와 비방을 만들어 내어 서로를 싸우게 합니다. 시기심은 치명적인 죄이며 악습이고,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육체를 위한 삶의 원리가 영혼이듯이 영혼을 위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사랑을 넘치도록 영원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중에 “열째 계명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기심을 몰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풍부한 재산에서 위안을 찾는 부자들을 두고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쓸 재물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하느님께 청하라고 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